



## 요약

### 사실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다.

### 양성 여정

불가능을 향한 부르심 1: 모든 부르심과 사명에는 기쁨과 십자가가 있다.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2. 모든 가정의 모델인 성가정.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3.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

### 가족의 연대기

- 칠레: ADMA 회장의 XIII 회의.

- 파키스탄: Jean Paul Muller 재무장관 방문.

- 브라질: 레시페의 ADMA가 조직한 마리안 회의.

- 캄보디아 ADMA의 새로운 회원.

- 2024년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제9회 회의: 등록이 시작됩니다.

## 사실

### 복음의 전파자인 마리아처럼

P.1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P.3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과 위령의 날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처와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찾도록 해줍니다.

P.5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슬프게도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고통과 폭력의 영상을 보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미지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크나큰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묻고, 선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망치는, 우리의 선택, 실수, 연약함으로, 우리도 작든 크든 이러한 상황에 기여했다는, 무력감, 나약함,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P.7

P.8

P.9

P.9

P.10

P.10

피자발라 추기경은 팔레스타인을 다시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의 구렁이에 빠졌습니다. [...] 모든 것이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실망의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그대로 두고 보며 무기력하게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우리 기도의 중심인 그분과 만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강론 참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오너라”(마태 25.34)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대기실에 있습니다(25.6 참조).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며”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25,8).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실천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천국과 관련이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을 갈망하고, 욕망과 필요를 혼동하고, 세상의 기대를 하느님의 기대보다 앞세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기대는 세상의 사실에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거나 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취약성에 짓눌리고 억압받지 않는 문제입니다. 경계심이 많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신감 있고 고요합니다. 그러면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태오 복음 25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 마태오 복음 25장을 들을 때마다 놀라움이 큼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라고 말하는 이의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 (25,37-39) 어느 때? 이것이 결국 정의로운 사람의 놀라움과 불의한 사람의 당혹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공로를 쌓은 이와 불의한 이의 유일한 판단은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향한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40절). 가장 높으신 분은 가장 작은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거처하시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이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 그러므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값을 수 없는 사람, 우리를 시선을 끌지 않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라면? 정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두 놀라서 물을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이란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 우리의 자비로운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해명이나 정제된 분석도 아니고, 개인이나 사회적 정당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다림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줍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날, 세상의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그것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정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졌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우리도 일상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ADMA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이들과 고통하는 이들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 그룹과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 양성 여정

# 불가능을 향한 부르심 1: 모든 부르심과 사명에는 기쁨과 십자가가 있다

### 1. 꿈, 부르심, 부르심의 꿈들

돈 보스코의 아홉 살 때 꿈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꿈은 그 자신만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 주고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가족정신 안에서 중요한 창조 신화입니다.** 부르심, 사명, 카리스마의 요소가 여기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소중한 이 이야기는 영적이며 사목적인, 미래 세대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꿈은 명백하게 **부르심과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오한 정체성은 부르심과 사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 응답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삶은 의미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졌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는 겸손과 용기, 신뢰와 희망, 주고받는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모든 건조함과 슬픔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합니다.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와 영성이 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꿈은 그의 특별함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신비로 향하는 열린 문과 같으며, **하느님의 계획과 그에 우선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하느님의 힘과 지혜로 일하고 살게 하므로, 자신의 한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능과 수완에 의지하지 않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고 용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느님의 꿈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명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메시지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K. Rahner)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과 부르심의 공통된 또 다른 특성은, 꿈의 이미지와 영감은 삽화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부르심의 길은, 출발하면서도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순명과 실행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 2. 성서의 부르심: 놀라움과 혼란, 위로와 절망

9살 때의 꿈 이야기 안에는 모든 성소와 사명에 대한 매우 유익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며, 요한 보스코의 부르심과 성서에 나오는 부르심의 위대한 장면들과 연결시켜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잇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부르시며 세상에 파견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에게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더 큰 것, 그의 기대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예측할 수 없는 계획에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그분은 지배하려는 욕망이나 통제하려는 가식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행복만이 요청되며,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의해, 더 이상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제한된 견해 또는 불확실한 계획에 좌우되지 않고, 하느님의 빛 안에서 걷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느끼며, 자신은 자기 백성에게 갈 능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탈출 3,11).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입니다(예레 1,6). 자신의 부족함을 두 번이나 보여준 베드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요한 21,3). 이는 또한 “부정한 입술”(이사 6,5)로 인해 성전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 이사야의 경험이기도 하며, 하느님 말씀의 힘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 아모스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로잡힌 느낌을 받았습니다(아모 3,8). 이는 부활하신 분과의 실존적 만남을 체험한 바오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사도 9.1-9). 그것은 완전히 거룩하고 은총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인사에,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루카 1,29)라고 하신 마리아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위대한 부르심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서의 인물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모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고, 자신을 넘어서는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 3. 모든 부르심과 사명의 핵심인 파스카

이제 보쥘로 신부의 돈 보스코의 9살 때 꿈에 대한 연구에서, 돈 보스코 성소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들의 꿈은 축제로 끝나지만, 어린 요한에게는 실망과 눈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눈물로 끝나는 축제? 어린 요한에게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거룩한 기쁨” 그리고 소년들에게 “매우 기뻐하라”고 가르칠 사도가 되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살레시오적 관점에서 찾아봅시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주셨다는 것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히셨고,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십자가, 사랑과 고통, 삶과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 역경과 불의, 굴욕과 괴로움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굳어지고, 낙담하거나 완고해지며, 세상의 죄와 악의 무게에 억눌릴 때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때, 대기와 만나면 불이 붙는 밝은 유성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관대하게 제공하신 낙원을 선조들은 거부했고, 하느님께서 계약을 갱신할 땐 예언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반대를 받는 표징”(루카 2,34)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고(요한 1,11),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요한 19,34). 하느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재판을 받고, 악인의 죽음과 함께 의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겸손에서 시작하여 순교로 끝나고, 매력적인 것이 박해로 바뀝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요한 15,19).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요한 3,19).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항상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거나 침묵할 수도 있고, 온유하지만 때때로 투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회심에 대한 부르심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에스텔부터 히브리서 저자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모든 인물들은 하느님 말씀의 달콤쌔름함과 상처 없이 치유됨을 목표로 하는 날선 검으로서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결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히브 4,12).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해 낯선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그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기쁨을 배경으로,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요한 15,18).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루카 6,26)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싸움은 외부의 원수들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쁜 성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영원히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며, 성령께서 보다 온유하게 해줍니다. 또한 부르심은 사명 안에서 실현되며, 사명은 언제나 복음화의 즐거움과 의무, 하느님으로부터의 신비스러운 보호, 피할 수 없는 세상 안에서의 삶으로 세상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로마 1,5).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고린 9,16).

### 4. 소명과 사명은 살레시안의 핵심

부활은 본질적으로 살레시안의 색입니다. **어려움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쁨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삶의 더 큰 가치가 은총이고, 모든 악보다 더 큰 것이 선이기에 가능하며, 악은 마지막에 “사라지고” 선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나오듯이 소년들의 기쁨과 요한의 실망의 대조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살레시안의 기쁨은, 헛된 행복감, 즐기 위한 오락, 단순한 경쾌함이 아니라, 은총의 아름다움의 내적 반향이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필리 4,5)라는 인식, 기쁨은 부활하신 분의 첫 번째 선물(요한 20,20)이며, 성령의 첫 열매(갈라 5,22)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자리는 “돈 보스코가 그의 아들들의 선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영적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보azole로 신부는 설명합니다. 돈 보스코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뿌리를 둔 이 꿈의 역할을 자기 자신 안에서 다시 체험합니다.” 9살 때 꿈은 예수님의 체험과 함께 이해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여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히브 12,2). 그리고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1고린 4,10). 그러나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2고린 1,24)입니다.

### 9살 때 꿈의 학교에서 우리도 물어봅시다.

1. 내 부르심의 신비, 계명에 깨어 있기와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은총들과 요청 속에서, 나는 나의 불확실함과 불편을 마주하며, 나의 보잘것없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응답했는가?
2.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법 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어떤 것이 그를 위협합니까? 나는 얼마나 겸손하고 결단력 있게 영적 투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겸손과 용기로 복음화의 임무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로베르토 카렐리 신부 - SDB

##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 2. 모든 가정의 모델인 성가정

나자렛에 -마리아의 집! - 대한 첫 번째 묵상은, “가정의 법”을 사랑의 일반 법칙의 구현으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친교와 분리, 결속과 개인의 자유, 순명과 자녀다운 피, 친밀함과 혼인의 풍요로움, 하느님과의 일치와 세상 안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자렛 성가정의 독창성과 특수성, 무엇이 그 집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왜 그 집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특별하고 모범적인 가족

우리는 성가정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이상, 일반적인 경험과 동떨어진 모델,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지향할 수 없는 관상의 대상으로 보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릅니다. “G. 콜롬보 추기경이 관찰한 가족의 심오한 의미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로 나자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과 사랑의

법칙이 온전히 지배하는 우리 남성들에게는 유일한 참된 가족의 모델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렛에는 가정의 모범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0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인 아드리엔 폰 슈페어르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델은 나자렛에서 유래하고 실행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성가정의 특별함의 모범적인 성격의 이유 이며,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자렛에서 우리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성화를 봅니다. 나자렛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냇물이 흘러나오는 샘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현존 하셨고, 하느님 아들의 인간이 되셨으며, 가족의 형태로 하느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폰 슈페어르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미래의 그리스도교, 즉 우리를 위해 살고 있으며, 나자렛 집은 결코 고립된



집도 아니었고, 달한 낙원도 아니었으며, 대문도 창문도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영원해지는” 성가정의 체험은 “예수님과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역에서 환영받고 변화됩니다. 나자렛의 이 기적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번영하게 됩니다!

###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가족

나자렛은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이 있는 집 이었고, 거룩함과 인간적 경외가 있으며, 서로 안에 머무는 집이었고, 인간의 애정과 일상의 단순한 몸짓 속에서, 모든 사람들처럼 수고와 시련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겪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성가정은 특별한 가족이지만 이상한 가족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다른 가정들로부터 고립되거나 자기방어를 굳게 하는 가정으로 머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너무 다르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은총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가족은 ‘이상한’ 가족,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AL 182).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은 그의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압니다” (마태 13,56). 실제로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자렛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자, 겸손한 여성, 교육을 잘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게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세 번째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자렛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게, 특별한 행위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 성가정을 관상하면서 가족 안에서 살아가기

하느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안에서, 얼굴, 몸짓, 말하는 체험을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가족 안에 하느님이 머무시게 되었고, 가족이 하느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가정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인간의 친밀함- 서로의 만남을 통한 사랑과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팔리코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거룩한 계약, 즉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친밀하고 심오하며 나누일 수 없는 화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가정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먼저 가정 교회로서의 참된 체험은 나자렛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동정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법을 배우며, 그 여정에서 표징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단계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의 향기가 충만한 나자렛 가정의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성과 사랑으로 그들의 얼굴과 장소와 사건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천사의 알림에 대한 마리아의 예,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요셉의 예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탄생의 현장을 찾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집트에서의 피난을 통해, 예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박해를 받고 굴욕을 당하는 당신 백성의 고통에 참여하셨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빵을 얻으셨고... 30대 청년이 된 예수는, 그의 지혜를 들은 율법학자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AL 65).



우리는 성가정의 비범하지만 평범한 삶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 부모, 자녀와 우리 자신을, 겉모습이 아닌, 하느님의 빛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2. 우리는 공동 행동의 큰 가치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성덕에 이르는 모든 참된 길은 큰 행위가 아닌, 일상의 충실한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것에 충실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루카 16,10 참조).

3. 마지막으로, 시련의 위대한 가치를 배우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선과 마음,

욕망과 기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사로잡혀 신뢰와 온유로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돈 로베르토 카렐리 - SDB

##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 3.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

회칙 『찬미받으소서』 241항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마리아의 인격과 피조물에 대한 보살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바친 향으로서, 모든 것의 참된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보존하시는 마리아의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호했습니다”(루카 2,19.51 참조). 그러나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가 더 지혜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칙 본문의 루카복음에 대한 괄호 안의 언급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그녀를 둘러싼 현실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를 목상하도록 두 번(제2장 19절과 51절) 초대함으로써, 마리아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전통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연구했으며, 삶의 기쁨과 슬픔, 모순을 성경과 대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지혜서(잠언, 지혜서, 집회서, 전도서, 시편, 아가서)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지혜로운 이들의 성찰과 기도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지혜서들은 삶의 문제에 있어 현명하고 노련한 여인의 지혜를 기꺼이 표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살핌과 지혜를 젊은이들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잠언 8-9장, 집회서 24장). 특히 잠언 9장 시작 부분에는 지혜로운 여자가 제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거리와 광장에서 그들을 찾고, 자기 시녀들을 불러 그들을 초대하도록 보냅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식탁을 앉아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따른 필요한 것들을 그녀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성찬례(마태 26,26)에서의 예수님의 몇 가지 몸짓과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거리로 초대하는 비유(마태 22,1-14),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활을 하시면서, 하느님께 권위를 받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아는 자로 살고 가르치심으로, 인격화된 지혜의 특성을 취하셨습니다(요한 14,6). 그러나 성서의 지혜는 여성의 모습이며, 사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교인들은 마리아의 모습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일부 특성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서에서 지혜에게 여성스러운 얼굴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동일시는 아마도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행한 교육적 역할의 반영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남자는 집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남·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자라서 일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클 때까지 많은 집안일을 돌보았으며, 자녀들에게 신앙과 민족의 문화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서의 위대한 인물인 에스터와 유딧이 보여 주듯이, 여성의 출산 능력은 아이를 낳는 데 결코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용기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과 사랑에 따라 따라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나아갈 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출산할 때 뿐만 아니라 교육할 때도 생산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임무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창조된 자연을 특징짓는 삶과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자신의 몸 안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요한 12,24 참조). 여성이 삶의 리듬에 맞춰 조율하며 사는 것은, 창조의 모든 요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성서의 지혜가 그러하듯이 여성은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행하며 중재하고, 같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며 도와줍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지혜로운 여성은 마리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지혜로운 여인들의 오래된 족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터, 유딧, 룻, 드보라, 엘리사벳과 같은 이들이 마리아보다 앞선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밖에도 교회 역사 안에는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맘마 마가리타와 마드레 마자렐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와 지혜의 관계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에서

중요합니다. 9살 때 꿈에서 마리아는, 돈 보스코에게 지혜의 스승으로 소개되었으며, 성인의 전기에서 말가리타의 교육 방식은, 마리아와의 연관성을 드러내 줍니다. 마리아는 예방교육, 즉 이성에 따라, 하느님의 계획에 열린 자세로, 친절하게,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기술의 스승입니다.

돈 보스코가 모르네세에서 마리아 도메니카와 그녀의 첫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는 마리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집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노동과 기도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하느님과 마리아가 그들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방교육의 핵심 요소가 이미 스스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FMA선교사에게 교황 비오 9세는 교육자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의 특성을 엄숙하게 상기시킵니다. 오늘날의 성 베드로 앞에서 우리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디서나 존경받는 미덕과 지혜의 큰 분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신 마리아께, 맘마 말가리타와 마드레 마자렐로, **그리고 지상 생활에서 지혜의 길을 걸으시고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많은 성인들에게 다함께 간청합니다.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 손에 맡겨진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은총을.**

린다 포케르 수녀- FMA

## 가족의 연대기

### 칠레 - 13차 ADMA총회: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성체 예수님의 신심 전파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회 (ADMA) 제13차 총회가 로카냐스 영성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니타 아길라 수녀(FMA), 살레시오회 미구엘 세미나리오, 돈 데이비드 리베라 신부가 기획한, 양성을 주제로 매일의 기도회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주기도는 집 주위를 돌며 바쳤습니다. 미사는 살레시오회 사제 에두아르도 카스트로와 마누엘 파하르도 신부가 집전했습니다. 총회를 계기로 지회의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고, 2022년 11월 푸에르토몬트 총회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개최될





차기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등록 방법과 ADMA에 대한 문제들이 검토되었으며, 재무보고가 있었고 이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FMA ADMA의 국가 영적활성자인 Lucía Rosada 수녀가 함께 하였으며,

점심 식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성체 예수님 신심을 계속 전파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 파키스탄- 장 바오로 물러 총재무담당의 살레시오 분원 방문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살레시오회 총재무담당인 장 바오로 물러 수사가 파키스탄 살레시오 관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장 폴 뮐러 수사님과 그의 친교와 돈 보스코 카리스마의 활력을 깨닫게 해 주신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기숙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레시오 공동체, 교사 및 직원들, 청소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재무담당은 기계, 용접, 목공, IT 연구실, 전기 기술자 과정, 냉동 기술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물러 수사님은 또한 라호르에 있는 살레시오 가족 그룹들인 살레시 협력자회, 졸업생 및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회(ADMA)와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2015년 라호르 외곽에 있는 유하나바드의 성 요한 교구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졸업생인 아카쉬 바시르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후에는 아카쉬의 가족과 함께



매우 친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공식방문은 매일 라호르의 살레시오회를 드나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브라질- 헤시피 ADMA가 조직한 마리아 대회



브라질, 헤시피 - 2023년 10월 - 10월 6일과 7일, 예수 성심 대성당의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주최, 관구 마리아 대회가 헤시피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여왕님”. 개회 미사는 브라질 헤시피 살레시오 관구장(BRE) 프란시스코 이나시오 신부가 집전했으며, 여러 신부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 캄보디아의 ADMA 신규 회원

2023년 10월 7일, 목주기도의 성모 축일에 캄보디아 살레시오 가족 역사상 처음으로 네 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전 세계 32개 살레시오 가족 그룹 중 하나인 ADMA(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2006년 Neak Luang이라는 베트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Don Bosco 전문 훈련센터의 9명의 학생과 고등학교 기숙생(가톨릭 신자 및 비가톨릭 신자)은 성탄절 기간 동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경험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모아 기도하고, 놀고, 교리문답, 위생, 삶의 가치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교와 마리아 신심이 계속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리아의 작은 목소리”라는 그룹이 탄생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아의 작은 목소리는 ADMA를 알게 되었고 살레시오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룹에



소속되기를 권유받았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ADMA 규칙 연구와 양성을 받고,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2023년 5월 24일, 수락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마리아의 작은 목소리’ 지회 4명의 입회지원자는 캄보디아 ADMA의 첫 회원이 되었습니다. 서약미사는 영적 활성화자인 Roel Soto SDB 신부가 집전했으며, 셀린 제이콥 FMA 수녀(총평의원)와 살레시오 가족, 서약자들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http://www.mariaauxiliadora2024.pt)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들(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